

농촌 노인 '마스크 구매 5부제' 사각지대

전남 22개 시·군 약국 없는 읍·면 절반 가까운 108곳 공적 판매처도 농협·우체국 2곳뿐...수량도 턱없이 부족 대리인 없는 80세 이상 독거노인도 불편...보완 시급

완도군 금당면 가학마을 주민들은 모두 216명이다. 이들 중 65세 이상 노인은 140명으로 65%나 된다. 이들이 공적 마스크를 구입하려면 10km 떨어진 면 소재지까지 나가야 한다. 그나마 버스를 다니지 않아 택시를 부르거나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얻어 타고 가야 한다. 혼자 사는 노인들은 대리 수령해 줄 사람이 없어 현재까지는 마스크를 구할 길이 없다.

완도군 금당면에는 약국은 없고, 농협과 우체국이 각 한 곳밖에 없는데 그나마 하루 평균 공급되는 공적마스크는 160매에 불과하다. 금당면 주민은 모두 990명. '마스크 구매 5부제'가 시행됐지만 이들에게는 여전히 마스크 사기는 '하늘의 별 따기' 일 수밖에 없다.

에 건져 턱없이 부족하다. 완도군 금당면 10개 마을(주민 990명)의 65세 이상 노인만 412명이지만 하루 동안 금당면 농협·우체국에서 파는 마스크는 고작 160매가 전부였다. 결국 몸이 불편한 노인들이 몇 km나 떨어진 면 소재지를 찾아도 마스크를 사기가 어려운 셈이다.

금당면 가학리 마을이장 진영하(60)씨는 "마을 어르신들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10km나 떨어진 면 소재지까지 나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그나마 버스로 다니지 않아 누군가 태워주지 않으면 돈을 들여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완도 읍면 읍도 비슷해 장도, 원도 등 섬 주민들의 경우 읍까지 1시간 가량 배를 타고 나와야 한다. 이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같은 동네 10분 거리에 사는 노부모, 줄 세워서 하나-현행 마스크 5부제에서는 만 80세 이상인 노인에게 대리 구매가 가능하지만 동거인으로 한정해 주소지가 다를 경우는 대리구매가 불가능하다. 몸이 불편한 노인들이 마스크 두 장을 사려고

직접 줄을 서야 한다는 얘기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65세 이상 전남 지역 독거노인은 모두 13만 5000여명으로, 이들은 '마스크 구매 5부제'에 따라 직접 공적마스크를 구매하러 약국을 찾아야 한다. 광주시 서구 풍암동 김모(48)씨는 "같은 동네의 10분 거리 아파트에 70대 노부모가 사는데, 같이 안산다는 이유로 자식이 대리 구매를 못한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노인들이 자신의 출생년도 끝자리 숫자와 요일을 맞추고, 직접 줄을 서서 마스크를 구매해야 하는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10일 오후 광주시 북구 한 약국의약사가 마스크 대리 구매를 하려는 시민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49 해질 18:37 달뜨기 20:27 달짐 07:57

해안가 시설물 관리 주의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광주	맑음	2/10	보성	맑음	1/10
목포	맑음	3/8	순천	맑음	3/12
여수	맑음	3/11	영광	맑음	1/8
나주	맑음	1/10	진도	맑음	3/9
완도	맑음	4/11	전주	맑음	0/9
구례	맑음	1/11	군산	맑음	-1/8
강진	맑음	2/10	남원	맑음	-1/9
해남	맑음	1/9	흑산도	맑음	4/10
장성	맑음	1/10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남부	북서~북	1.5~3.0	북서~북	0.5~1.5
면바다(북)	북서~북	2.0~4.0	북서~북	1.0~2.0
면바다(남)	북서~북	2.0~4.0	북서~북	1.0~2.0
남해남부	북서~북	0.5~1.5	북서~북	0.5~1.5
면바다(서)	북서~북	2.0~4.0	북서~북	2.0~3.0
면바다(동)	북서~북	2.0~4.0	북서~북	1.0~2.5

◇생활지수

감기	보통
뇌졸중	보통
미세먼지	좋음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8:30 20:55	03:13 15:44
여수	04:04 16:26	10:27 22:46

◇주간 날씨

12(목)	13(금)	14(토)	15(일)	16(월)	17(화)	18(수)
☀	☀	☀	☀	☀	☀	☀
1/16	5/12	-1/10	2/11	1/11	2/15	4/14

전남교육청 개학 연기 분야별 지원대책 마련

전남교육청이 '코로나19'로 인한 초유의 개학 연기에 맞춰 분야별 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10일 오후 도교육청 청사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개학 연기 사태를 맞은 도내 교육 현장의 학생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장 교육감은 "코로나로부터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휴업 장기화로 인한 학습 결손 최소화, 학생 생활지도 등에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장 교육감은 "온라인 학습 지원을 통해 휴업에 따른 수업 결손 피해를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다"며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별도의 '전남 온라인 교육 서비스'도 구축했다"고 밝혔다.

휴업 기간 학생 생활교육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학교와 학생·학부모 간 비상 연락망을 구축해 학생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살피고, PC방과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자제하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 긴급돌봄 이용 유치원생 58%·초등생 196% 증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유·초등학교 개학 연기가 장기화하면서 긴급 돌봄 이용자가 늘고 있다.

1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284개 유치원, 799개 학급에서 4380명이 긴급 돌봄을 이용했다. 초등학교에서는 전체 154개교 가운데 132개교에서 281학급을 운영해 1235명이 참여했다. 긴급 돌봄이 처음으로 이뤄진 지난 2일 참여자는 유치원 2771명, 초등학교 417명이었으나, 8일 만에 유치원생은 58%, 초등학생은 196% 증가했다.

긴급 돌봄 마감 시간을 2시간 연장하고 급·간식비도 지원하면서 참여 학생이 늘어났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개학 연기 기간이 길어져 부모들이 긴급 돌봄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김대성 기자 bigkim@

광주 남구 백운광장에 '스트리트 푸드존'

푸드 스토어·로컬푸드 직매장 조성 계획 실시설계 용역 추진

광주시 남구가 백운광장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푸른길공원 인접 지역을 활용한 '스트리트 푸드존' 조성 사업을 본격화한다.

남구는 10일 "백운광장 인근에 조성된 푸른길 공원과 연계해 주변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꾀하고, 많은 이들이 방문하는 백운광장으로 만들기 위해 스트리트 푸드존 조성 관련 기본 구상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백운광장 인근 푸른길공원 주변에 들어설 예정인 로컬푸드 직매장과 약 500m 구간에 달하는 스트리트 푸드존을 연계,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 플랜 및 연차별 세부사업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구는 입찰 공고를 통해 이달 말까지 용역에 참가할 업체를 모집한 뒤 제안서 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4월 중순께 용역 수행자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용역 기간은 6개월이며, 이르면 오는 10월 정도에 스트리트 푸드존 조성 관련 기본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남구 관계자는 "남구의 기본 구상은 푸른길공원 500m 구간에 세계 각국 음식을 체험하는 푸드 스토어 30곳 이상과 로컬푸드 직매장 및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 판매 공간 마련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

광주 빚고을고등학교 학생중심 교육환경 조성 완료

광주 빚고을고등학교가 겨울방학을 이용해 '사용자 참여중심 학교환경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사업은 학생들이 진로에 맞춰 신청한 수업이 가능하도록 소규모 학습공간을 마련하고, 학생들과 협의를 통해 '어지트(아-랩트)' 사업과 병행해 호응을 얻었다. 주요 내용은 시청각실, 도서실 등의 리모델링과 현관 출입구와 각 층별 홈페이지 공간을 최대한 수요자 맞춤형으로 재구성해 학생들이 학교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나주에서 무안까지 34km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영산강 강변도로 개통"

범례

구분	개통	미개통
차도	——	---
자전거도로	——	---

영산강 강변도로 개통